



통계청-OECD 1차 실무협의 자료

《 목 차 》

| | |
|------------------|------|
| I. 1차 실무 협의 개요 | / 1 |
| II. 주요 협의내용 | / 2 |
| 1. 의제 및 프로그램 구성 | / 2 |
| 2. 발표자 및 초청 | / 4 |
| 3. MOU 관련 | / 6 |
| 4. 기타 | / 10 |
| III. 참고자료 | / 12 |
| 1. 양 기관간 양해각서(안) | / 12 |
| 2. 초청장(안) | / 22 |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
대외협력과

I. 1차 실무협의 개요

- **(목적)** '08.7월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 발족 이후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세계포럼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양 기관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하여 논의
- **(일시 및 장소)** '08.11.4 ~ 11.5.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통계청 3명, OECD 통계국 13명
 - * 통계청 : OECD세계포럼준비기획단 김설희국장, 강유경과장, 김인혜주무관
 - * OECD 통계국 : Enrico Giovannini, Jon Hall, Suzanna G.K, Yoon-Jung Lee 등
- **(협의내용 및 일정)** 의제 및 프로그램 구성, 발표자 선정 및 초청 관련 제반사항, MOU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

제1차 실무협의 프로그램

| 일시 | 안건 | 주요 내용 | 참석자 | |
|------|----|----------------------------|-------------------------------------|--|
| 11.4 | 오전 | 향후 작업 일정 및 아이디어 회의 | · 교토회의, 실무협의 일정 등 · 문화행사 | 김설희,강유경,김인혜 Jon Hall, Suzanna,etc. |
| | | 발표자 및 초청 | · 초청 VIP 선정 및 섭외주체 · 초청 관련 행정 사항 | 김설희,강유경,김인혜 Jon Hall, Suzzana,etcc |
| | 오후 | MOU 관련 | · 양 기관의 역할 및 책임 규정 | 김설희,강유경,김인혜 Jon Hall, Suzanna,etc. |
| | | 의제 및 프로그램 | · 전체회의 및 부문회의 주제 · 한국측 인사 참여도 | 김설희,강유경,김인혜 Jon Hall, Suzanna,etc. |
| 11.5 | 오전 | 협의내용 재정리 | · 협의내용 재정리 | 김설희,강유경,김인혜 Enrico Giovannini, Jon Hall, etc |
| | 오후 | IT설비 및 전시회 | · IT 설비 설치, 전시회 등 | 강유경,김인혜 OECD ICT Dep.,Lynda Hawe |
| | | OECD 대표부 김종수 대사 간담회(16:00) | | |

II. 주요 협의 내용

1. 의제 및 프로그램 구성

(1) 현재까지 진행사항

□ OECD 측에서 세계포럼 의제 및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초안을 우리측에 송부(10.1)

○ 현재 초안은 일자별·세션별 주제 및 초청이 확실시되는 발표자 위주로 작성된 상태이며, 부문회의 프로그램은 계속 작업 중

제3차 OECD 세계포럼 의제 및 프로그램(안)

| 포럼 주제 :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 Improving Life | | | |
|--|---|-------------|---|
| 일자 | 주제 | 구성 | |
| 10.27. (화) | How is the World Progressing? | 09:00~10:30 | 7개 지역별 워크숍 운영 (유럽,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북미, 아랍, 아프리카) |
| | | 11:00~12:30 | 개회식 및 기조연설 |
| | | 14:30~16:30 | 전체회의(사회발전에 대한 대륙별 시각 공유) |
| | | 17:00~18:00 | 코피 아난 연설 (사람을 통한 발전) |
| 10.28. (수) | New Measures, New Policies | 09:00~10:30 | 전체회의 (발전 측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 | | 11:00~12:30 | 부문회의(국가별 선진사례) |
| | | 14:30~16:00 | 전체회의(새로운 발전측정과 새로운 정책) |
| | | 16:30~18:00 | 부문회의(정책 향상을 가져온 새로운 측정방식) |
| 10.29. (목) | How can we improve the way in which evidence on progress promotes change? | 09:00~10:30 | 부문회의(증거와 인간행동양식의 변화) - 3개 세션(신뢰, 불평등, 기후·환경) |
| | | 11:00~12:30 | 전체회의(증거와 인간행동양식: 변화의 물리학) |
| | | 14:30~16:00 | 부문회의(변화를 위한 각 부문별 역할) -7개 세션(시민사회, 미디어, 통계 전문가, 학계, 기업, 국제기구, 예술인) |
| | | 16:30~18:00 | 전체회의(새로운 정책, 새로운 행동양식, 새로운 제도) |
| 10.30. (금) | Taking this forward - next step | 09:00~09:30 | 시상식(우수 선진사례 및 우수 전시부스) |
| | | 09:30~10:30 | 전체회의(포럼 의의) |
| | | 11:00~13:00 | 기조연설 |

(2) 금번 협의사항

□ OECD 제안사항

- **(한국측 고위급 인사 참가 독려)** 첫째날 아태지역 워크숍을 한국측 고위급 인사가 진행

□ 우리청 입장

- **(한국인 발표자 수)** 전체 발표자* 수의 10%를 한국측 인사에게 할당하는 것을 재확인(e-메일로 기협의)

* 발표자는 chairperson, speaker와 discussant를 모두 포함

※ 제2차세계포럼에서 전체 발표자 208명 중 7% 수준인 15명이 터키측 인사

- **(부문회의 1개 세션 구성)** 우리청이 1개 세션*을 전담하여 세션 구성에서 운영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요청

* 10.28.(수) 부문회의(국가별 선진사례) 또는 10.28.(목) 부문회의(변화를 위한 각 부문별 역할)중 1개 세션 기획 및 운영

* 1개 부문회의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주제로 진행 (한국측 제안)

- **(한국인 참여 세션)** 현 상황에서 총 7개 부문의 참여가 확 실시되나, 부문회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되면 참여 세션 범위 확대

< 한국인 참여 세션 >

- 10.27.(화) : 지역별 워크숍, 개회식 및 기조연설, 전체회의
- 10.28.(수) : 부문회의(국가별 선진사례),
전체회의(새로운 발전추정과 새로운 정책)
- 10.29.(목) : 부문회의(변화를 위한 각 부문별 역할)
- 10.30.(금) : 기조연설

※ 제2차세계포럼에서 터키는 개회식, 폐회식, 전체회의 2, 부문회의 9 참여

2. 발표자 및 초청

(1) 현재까지 진행사항

□ **(발표자 선정)** 의제·프로그램 구성과 마찬가지로 발표자 선정·초청은 OECD측의 책임사항으로 현재 작업 중

※ 전체 발표자의 10%에 해당하는 한국측 인사는 통계청에서 담당

- 현재 초청이 거의 확실시되는 인사는 코피 아난(전 UN 사무총장), 조셉 스티글리츠(노벨경제학상 수상)를 비롯하여,
- 케빈 러드(호주 국무총리), 엘렌 존스 샤리프(리베리아 대통령), 다니엘 카레만(노벨경제학상 수상), 로버트 푸트넘(하버드 대 교수), 낸시 펠로시(미 하원의장) 등이 있음

제3차 OECD 세계포럼 초청 VIP (안)

| 일자 | 초청인사 | 역할 |
|--------|---|--------------------------|
| 10.27. | 도널드 카베루카(AFDB총재) 놀린 헤이저(UNESCAP 사무총장)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IADB 총재) 낸시 펠로시(미국 하원의장) 한스 게르트 포터링(유럽의회 의장) | Plenary Session Speaker |
| | 코피 아난(전 UN 사무총장) | Speaker |
| 10.28. | 조셉 스티글리츠(노벨경제학상 수상) | Plenary Session Speaker |
| 10.29. | 로버트 푸트넘(하버드 대 교수) | Parallel Session Speaker |
| | 다니엘 카레만(노벨경제학상 수상) | Plenary Session Speaker |
| 10.30. | 케빈 러드(호주 국무총리) | Keynote |
| | 엘렌 존슨 샤리프(리베리아 대통령) | Keynote |

※ 10.27일 기초연설을 반기문 UN 사무총장으로 할 계획에 있으나 불투명

□ **(초청장 발송)** 양 기관장 공동명의로 초청장을 작성하되, OECD통계국장 e-메일 계정으로 일괄 발송하는 것에 합의

○ 현재 초청장 초안(9.12) 및 1차 초청명단 작성(10.1)

※ 단, 한국측 인사의 경우 우리측 계정으로도 발송할 예정

(2) 금번 협의사항

□ **OECD 제안사항**

○ **(VIP 초청 관련)** 각 기관이 초청장 발송 시 수신자에 '참조 (copy)' 지정하여 초청관련 진행상황 상호 점검 가능토록 협조

□ **우리청 입장**

○ **(반기문 UN 사무총장 초청)**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경우 개최 1년전에 참석 유무를 확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나, 그간 OECD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

- 반기문 UN 사무총장 참여는 세계 포럼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협력 파트너인 부산시의 가장 큰 관심 사항

<참고. 반기문 UN 사무총장 초청 관련 히스토리 >

- OECD측에서 우리청의 도움 요청('08.2월)
- UN 대표부에 지원요청('08.2.25.)
 - .. 면담 : 김해수 전 통계청 차장, 김현중 UN 대표부 대사
 - .. 결과 : OECD 사무총장이 UN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동 포럼 참석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 OECD측에게 우리측 입장 전달('08.2.26.)

○ **(초청 관련 제반 행정사항)**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OECD측에서 제반 사항을 책임진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

※ 전체 초청규모는 1,500명 예상(외빈 1,300명, 내빈 200명)

3. MOU 관련

(1) 현재까지 진행사항

개최국과 국제기구간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양 기관 MOU 추진('09년초 체결 예정)

○ 우리측에서 제2차 세계포럼 터키-OECD간 협정문(Partnership Agreement)을 참고하여 양해각서(안)을 작성(9.12) 후, 이를 OECD측에서 검토(10.26)

※ 터키의 경우 제2차세계포럼('07.6.27~30)을 위하여 OECD와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우리나라는 OECD와 협정이 기체결되어 있는 관계로 양 기관 MOU 체결 (외교부 자문결과)

현 MOU(안)은 총 6개 조항 및 별표 2개로 구성

< 통계청 -OECD MOU(안) 구성 >

(제1조)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2조) 양 당사자의 책임 사항

(제3조) 기관명칭의와 로고 관련 사항

(제4~6조) 약정서 변경에 관한 사항

(별표 1) 한국측 조달 세부사항

(별표 2) 양 기관 업무 분담

※ III-1. 양 기관간 양해각서(안) 참조

(2) 금번 협의사항

OECD 제안사항

○ (오·만찬 관련 후원자 필요) 오·만찬 제공을 위한 후원자를 물색하여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및 NGO 단체 참가자 재정지원 방안 검토 요청

- 이 외, OECD 직원 체류비용, 통역 관련 협의는 양측의 구체적인 검토후 재협의 제안

□ 우리측 입장

MOU(안) 제2조 및 별표 관련 협의 사항

| 구분 | 우리측 원안 | OECD 수정안 | 우리측 입장 |
|-----------|---|--|--------|
| 오·만찬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찬 2회 · 갈라디너 1회 · 각테일 파티 1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찬 3회 · 갈라디너 1회 · 각테일파티 1회 · 디너 1회(스폰서) · VIP 등 별도 점심 제공 · 만찬 최대수용규모 1,700명 | 재협의 |
| 웹캐스팅 | 전체회의 | 전체회의와 부문회의 1개 세션 | 수용 |
| 통역자 선정 | 통역자 기준 언급 無 | · OECD 기준에 의하여 통역자 선정 및 제공 | 재협의 |
| 통역언어 | · 7개국어* | · 원안 수용 | 재협의 |
| 영어가능 호스티스 | · 20~25명 | · 25~30명 | 수용 |
| 프레스센터 | · 국제전화 언급 없음 | · 국제전화 가능 폰시설 2대 | 수용 |
| 추가시설 | · VIP라운지, OECD 사무실 등에서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추가로 임대 조치 | 원안 수용 | 재협의 |
| 기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가방 및 브로셔 제공 · 직원 사무실 플라즈마 스크린 제공 · 수화물 검색 모니터(2 → 3) · 무선인터넷 적용 공간 확대 | 부분 수용 |

* 한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서반어

- **(오·만찬 관련)** 현재 부산시에서 VIP 만찬 및 디너 1회 제공을 희망하고 있어 OECD 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
 - 단, 오만찬 종류별 최대 수용 인원 및 예산 여력, 부산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최종 확답은 보류하되,
 - 우리측은 오찬 2회, 갈라디너 1회, 칵테일파티 1회 및 VIP 만찬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오찬 1회 및 VIP 별도 점심 등은 OECD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할 예정
- ※ 제2차세계포럼 시 터키가 오찬 3회, 갈라디너 1, 칵테일파티 1회 제공
OECD가 IBM의 후원으로 발표자 디너 1회 제공
- **(웹캐스팅)** OECD측이 전체회의 뿐 아니라 부문회의 1개 세션에 대하여 웹캐스팅을 요구하였는데, PCO와 조율 가능하여 수용
- **(통역 언어 및 통역자 선정)** 7개국어 통역을 위한 인프라를 제안 하였으나 통역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OECD와 보다 면밀히 협상 필요
 - OECD 공식 언어인 영어 및 불어에 대해서는 OECD 스태프 통역자를, 한국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통역자를 제공하고, 그 외 언어는 통역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부담
 - 이 때, 통역자의 통역비, 체류비 및 여행경비는 각 기관에서 부담
- ※ 제2차 세계포럼 : 7개국어 지원(통역자 OECD 선발, 비용 분담)
- ※ OECD 장관회의 : 4개국어 지원(한국은 한국어 통역자 및 OECD 스태프통역자에 대한 여행경비와 체류비 지급)
- **(추가시설)** 우리측 원안에 'VIP 라운지, OECD 사무실 등에서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추가로 임대조치'의 문구를 삭제토록 협의
 - 대신 사전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파악한 후, 제공 유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

- (기타)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추가 비용 등을 파악한 후 추후 결정
 - 수화물 검색 모니터 증설 (2 → 3)
 - 브로셔 종류 및 인쇄 부수

- (포럼 후원자 관련) OECD측이 포럼 후원자 공동 물색을 제안 하였으나, 양 기관의 역할이 구분된 만큼 각 기관이 그 역할에 필요한 스폰서를 각각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
 - ※ 제2차 세계포럼: 터키 - 터키텔레콤(웹케스팅), 중앙은행으로부터 후원
OECD - IBM(만찬)으로부터 후원
 - ※ OECD 장관회의: 방통위는 SK(오찬), KT(무선인터넷)로부터 후원

- (포럼 참석자 중 대학, NGO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년도 예산 36.6억원 중 초청인사 관련 예산은 5,800만원*만 책정되어 있어 우리측에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OECD측에서 후원받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 동 예산은 우리측에게 할당될 1개 세션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할 예정

- (OECD 직원 체류비 등 비용) 동 포럼의 경우 OECD와 우리청이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것만큼 OECD 직원에 대하여 체류비를 우리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예산에도 미편성
 - ※ OECD 장관회의때 방통위에서 OECD 사무총장 및 차장, 스태프의 항공비, 숙박비로 2억 2천만원 지출한 것을 근거로 OECD측에서 무리하게 요구

- (전시 참가자 유형, 홍보) 현재까지 우리측 아이디어가 구체 적이지 않은 관계로 OECD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

4. 기타 논의사항

(1) 향후 협의 일정 등

- **(교토 회의 등 지역 회의)** 지역 회의(Regional Conference)와 관련한 향후 일정 및 참가 여부에 대하여 논의
 - 3.23~24로 예정된 교토회의는 아시아 지역회의로 우리측에서 참가할 예정에 있으며,
 - 그 외 다른 지역회의의 참가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

- **(실무협약)** MOU 체결, 홍보 및 공동 기자회견 등을 위하여 추후 2~3회 실무협약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 2차 실무협약은 내년 초 OECD측에서 내한하여 MOU 체결을 마무리 ('09.1.13~14일, OECD 통계국장 방한 예정)
 - 3차 및 4차 실무협약은 교토회의 및 9월 예정(추후 변경 가능)

(2) 문화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

- **(문화행사)** 그간 세계포럼 전례를 따라 개회식과 폐회식에서는 문화행사를 지양하고, 주로 만찬 시 문화행사를 곁들일 수 있는 방향 제시
 - 문화행사는 칵테일 파티, VIP 만찬, 갈라디너 때 각 1~2회 실시할 것을 제안
 - ※ 제2차 세계포럼의 경우 갈라디너 때 왕실 의장대 공연 1회가 전부
 - 퓨전 클래식(해금·가야금의 팝 또는 클래식 연주, 국악 팝 오케스트라 등), 재즈공연, 비보이 공연, 전통예술 공연에 대한 OECD 측 의견 조회

□ **(관광프로그램)** 부산시가 제안한 관광프로그램(테마별, 기간별)을 OECD 측에 소개

- 테마별 - 부산자랑, 역사탐방, 쇼핑투어, 체험투어 등
- 기간별 - 반일코스, 1일코스, 1박2일코스

(3) IT설비 및 전시회 관련

□ **(IT설비)** 현재 PCO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으나 OECD측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 추후 수용여부를 검토할 예정

□ **(전시회)** 100개 기관의 전시참여를 목표로 하되, 이 중 30개 기관은 우리청에서 섭외하기로 구두협약하였으나, 참여기관 수를 현실화할 필요

- 전시회 성격, 전시 참여기관 섭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 제2차 세계포럼의 경우 총 35개 기관이 참여
(정부기관 8, 국제·유럽기구 10, 민간기업 6, 학교 3, 기타 단체 8)

□ **(웹페이지)** 제3차 세계포럼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OECD측 의견 청취

- 메뉴 구성, 콘텐츠 등 논의 (OECD 사무총장 인사말씀 내용 요청 등)

※ 홈페이지: <http://www.oecdworldforum2009.org>

III. 참고자료

1. 양 기관 양해각서(안)

(1) 본문

한국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간 제3차 OECD세계포럼에 관한 양해각서(안)

한국 통계청(이하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2007년 12월 통계청이 제3차 OECD세계포럼(이하 “회의”)으로 명명되는 4일간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 한 바 있다.

이 회의는 전 세계의 통계관련 정책 입안자, 기업인, 학자, 언론인, 사회운동가들이 사회의 발전 측정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통계청과 OECD(이하 “양 당사자 또는 양 기관”이라고 한다)는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과 조건을 합의한다.

양 당사자는 회의 준비와 조직 및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한 자원을 배치한다. 첨부 조항에는 기술적, 공간적, 조달 관련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각 당사자의 책임 사항과 추진 일정이 명시되어 있다.

1. 회의의 일정

1.1 제3차 OECD세계포럼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개최된다.

1.2 회의장은 대한민국 부산에 위치한 부산컨벤션센터(BEXCO, 이하 “회의장”)이다.

2. 회의의 조직

2.1 OECD는 본 양해각서 2.2항 및 별표 1에 명시된 통계청 책임사항을 제외한 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2.2 통계청의 책임사항

통계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2.1 OECD와 협의하여 세계포럼의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성 및 조정한다.

2.2.2 회의장, 회의실, 사무공간과 별표 1에 명시된 필요한 장비와 물자 지원을 포함하여 회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무상 제공한다.

2.2.3 통계청은 오찬 2회와 갈라 디너 1회 및 각테일파티 1회를 제공한다.

2.2.4 회의 규모 중 할당된 한국 측 발표자 및 참석자 초대 준비를 수행한다.

2.2.5 회의장 내 응급상황 시 적절한 구급처치를 위한 시설과 직원 및 회의와 관련된 적절한 보험을 제공한다. 보험의 범위는 인명상해, 사망, 자산손괴 및 손실을 포함한다.

2.3 OECD의 책임사항

OECD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3.1 OECD 규정에 따라 회의 전반에 대한 준비와 수행을 주관한다.

2.3.2 회의참석자가 1,500명 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각 국 참석자를 초대한다. 다만, 발표자 중 10%는 한국 측 인사에게 할당한다.

2.3.3 첨부 문서에 제시된 통계청이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제외한

모든 준비 사항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2.3.4 통계청 직원을 회의 개최 1년 전부터 세계포럼 사무국에 파견 받아 양 기관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2.3.5 회의의 기획과 조직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와 통계청과 그 계약업자들이 회의 준비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즉각 통계청과 사전 협의한다.

3. 명의, 로고 등 권리의 사용

3.1 OECD 및 통계청의 명의와 로고 : OECD와 이를 대신하는 다른 어떤 주체도 양 측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어떤 형태와 목적으로든 OECD 및 통계청의 명의와 로고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3.2 회의 로고 : 통계청은 OECD와의 협의 후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로고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의로고에 포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은 통계청이 소유한다.

3.2.1 다만 OECD는 회의 준비 및 개최 기간 동안 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회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4. 종료, 취소 또는 연기

4.1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통계청과 OECD의 상호 합의에 의해 회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본 약정서는 즉시 종료되며 각 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지불한다.

4.2 OECD에 의해 행사가 취소, 중단, 연기되거나 회의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OECD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사 종료

적어도 60일 전에 통계청과 협의한 후, 본 약정서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로 약정서가 종료되면 각 측은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5. 합의문 조정 및 변경

5.1 양 당사자가 서로 문서로 합의하는 경우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5.2 본 양해각서(별표1, 2를 포함한다.)와 5.1항에 따라 서면합의 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전적인 합의를 표현한 것이며, 계약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결된 모든 기존의 제안 또는 협의를 대체한다.

6. 효력 발생

6.1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한 즉시 발효되며 회의와 부대행사가 종료되면 양해각서의 효력도 함께 종결된다.

6.2 6.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은 약정서 종료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

증인 앞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양 당사자의 대표들은 2008년 <약정 체결장소 명기>에서 영어 원본 협정서에 서명한다.

대한민국 통계청을 대표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대표하여

(2) 별표 1. 조달사항(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한국정부 제공)

□ 회의장 시설

- 8인용 발표자 테이블 및 단상에 1개 연단을 갖춘 1,500석 규모 회의장 1실
- 단상에 5인용 발표자 테이블을 갖춘 200석 규모 회의장 7실
- 30인 규모 VIP 라운지 (의자, 식 음료, 컴퓨터 4대) 1실
- 1,500명 수용 가능한 오찬장 1실
- 1,500명의 참석자 및 배우자 접대 가능한 주방 설비(dining facility)
- 회의장 시설 내 OECD 스탠드 1개
- 사이버 카페
- 프레스 룸
- 등록 및 안내 데스크 (각각 안내자 및 프린터를 갖춘 최소 8개 등록 데스크로 구성) 1구역
- 20인 규모 OECD 사무국
- 다수의 발표자 대기실
- OECD 스탠드 위한 넓은 공간 및 발표/토론 위한 작은 공간
- 커피음료 대 (총회장 밖 4개, 개별 회의장 밖 1개)
- 외투 및 가방 등 휴대품 보관소
- OECD 전용 (양자회의, 사무총장 사무실 등의 용도) 회의실 또는 사무실 5-8개
- 전시 공간 (전시 관련 장비는 전시 참가자가 비용 부담)

□ 식 음료(catering) : 3. 5일 간 필요사항

- 매일 1,500명을 위한 커피 타임 2회 - 오전, 오후
- 1,500인분 점심 2회 - 첫째 날, 셋째 날
- 1,500인분 환영 칵테일 파티 1회
- 모든 참석자를 위한 갈라 디너 파티
- 커피 타임, 오찬 및 만찬 시 서빙 스태프
- 회의 중 발표자를 위한 음료(물)

□ 시청각 시설

① 각 회의장 별(전체회의장 및 부문의회의장)

- 회의장 및 단상 조명
- 발표자 프리젠테이션용: 1) CD-Rom/디스켓 리더 장착된 노트북 1대 연단 위 설치, 또는 2) 액정화면+무선 마우스+리모트 연단 앞 설치

② 시청각 설비

- OECD 사무국 사무실, VIP 라운지, 프레스룸과 로비에 대회의장 회의 영상을 송신
- 단상 위 화면에 회의 제목, 발표자 이름,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영사 (최종확정에 따라 영사기 또는 비디오 프로젝터 중 하나)
- 개별 회의장 및 대회의장 기술 제어
- 대회의장 내 질문자용 무선 마이크로폰 6개, 개별 회의장내 각 2개
- 단상에 마이크로폰 및 소형 마이크로폰(lapel microphone)
- 대회의장 회의 인터넷 생중계 (Live Webcast)

□ VIP 라운지

- 대회의장 상황 전송용 액정화면

□ 직원 사무실

- 대회의장 상황 텔레비전 모니터 전송

□ 프레스 룸

- 대회의장 상황 전송용 액정화면

□ 기타 설비

- 현장 OECD 직원간 및 기타 관련자간 연락 장비
- 현장 공지용 마이크 1개
- OECD 스탠드용 액정화면 4대
- 만찬 시 기초연설이 있을 경우, 무선 마이크 2대, 노트북(CD-ROM 장착), 프로젝터, 조명, 기술제어
- 회의 주요 정보, 동적 그래프, 기타 안내 사항 등 표시할 추가 액정화면 10대 회의장 주변 배치

동시 통역

- 7개 국어 동시통역 시설 및 부스
 - ※ 한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IT 및 복사 시설

- 복사기, 컴퓨터, 전기설비 현장 유지보수 기술자

가구 및 스탠드

- OECD 스탠드: 구체적인 컨셉은 향후 결정
- 스폰서 전시용 스탠드
- 배지 및 회의가방 배포를 위한 안내/등록 데스크 - 10-15 군데
- 기타 프리젠테이션 및 토론용 추가 스탠드: 개수 및 컨셉 등은 추후 결정
 - * VIP 라운지 또는 기타 회의실용으로 추가 가구 렌트가 가능하여야 함. 이는 행사장의 제공된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

표지(Signs)

- 회의장 밖 배너
- 각 회의장 단상 및 회의장 로비 내 스폰서 표지
- 오찬장내 오찬 주최자 표지
- OECD, 한국통계청, 스폰서(기관, 정부, 민간) 각 표지
- 방향 표지

청결 및 유지보수

- 회의장내 지속적인 청결 유지

□ 보안

- 보안요원 4일간 배치: 행사장 규모/형태에 따라 인원 수 결정
- 적외선 수화물 검색 모니터 2대
- 야간 보안요원: 행사장 규모/형태에 따라 인원 수 결정
- 제작 및 사전 출력 완료된 배지 (7종): 대표단용, VIP용, 발표자 및 토론자용, OECD 직원용, 한국통계청 직원용, 기술 스태프용, 배우자용

□ 안내직원 (hostesses) -영어 가능자

- 20-25명 : 운영지원, 헤드폰배포, 방향안내, 회의장내 이동마이크 전달
- 10-15명 : 등록 및 여행 신청 안내

□ 셔틀 버스

- 공항-호텔, 호텔-회의장, 호텔-만찬장, 회의장-공항 간 셔틀 운행

□ 한국 내 회의 주최자는,

- 행사장 인근의 4-5성급 호텔 총 1,500여 객실 선점 및 객실료 협의
- 회의기간 전/중/후, 참석자와 그 배우자를 위한 단기 여행 마련
- 표지, 단상, 배지 디자인
- 표지, 배너, 단상 디자인, 배지 프린트 협의
- 셔틀버스 편성
- 행사장내 등록 데스크 및 회의가방 준비 직원 배치
- 행사장 직원과 협력하여 회의 준비 진행 상황 점검
- 적절한 보안 수준 보장
- **프레스 룸**
 - WIFI (무선 인터넷)
 - PC 5대
 - 키보드 (설정언어 향후 결정)
 - 사무국용 전화기 2대

- 팩스 1대
 - 복사기 1대 (고성능: 속도 및 용량)
- 사이버 카페**
- WIFI (무선 인터넷)
 - 컴퓨터+스크린 각 20대
 - 키보드 (설정언어 향후 결정)
 - 소프트웨어 향후 결정
 -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4대
- VIP 라운지**
- WIFI 기능 탑재된 컴퓨터+스크린 각 4대
 - 키보드 (설정언어 향후 결정)
 - 소프트웨어 향후 결정
 - 프린터 2대
 - 전화기 1대
 - 팩스 1대
- 각 발표자 및 토론자단 대기실**
- WIFI 기능 탑재된 컴퓨터+스크린 각 2대. 발표자 대기실 컴퓨터는 대회의장 및 부문의회의장 각각에서 발표자의 발표 슬라이드 재생에 사용될 컴퓨터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함.
- OECD 사무국 사무실**
- OECD가 제공 노트북 10대 설치 공간
 -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3대
 - WIFI (무선 인터넷)
 - 복사기 1대 (고성능: 속도 및 용량)
 - 전화기 1대
 - 팩스 1대
- OECD 스탠드**
- OECD가 제공 노트북 4대 설치 공간
 - 프린터 1대
 - 전화기 1대

- 팩스 1대
- 프리젠테이션 및 토론 스탠드 공간 (잠정)
 - LCD 프로젝터 및 스트린 2대
 - 액정화면 4대
 - 노트북 4대
 - 무선 인터넷
 - 무선 마이크 4대
 - 스피커

(3) 별표2. 양 기관 업무분장

| 업 무 | 담 당 |
|-------------------------------|---------------------------|
| ○ 회의장소 예약 | 한국통계청 |
| ○ 보도자료 배포 | 한국통계청 / OECD |
| ○ 회의기획전문가(PCO) 선임 | 한국통계청 |
| ○ 만찬장 예약 | 한국통계청 / PCO |
| ○ 4-5성급 호텔 포함 1,500개 객실 확보 | PCO |
| ○ 스폰서 및 자원 확보 | 한국통계청 / OECD |
| ○ 초청장 발송 및 일정 작성 | 한국통계청 / OECD |
| ○ 전시회 설계 및 스탠드, 프리젠테이션 참석자 확보 | 한국통계청 / OECD |
| ○ 등록양식 수집, 도착/출발시간 확인 | OECD / PCO |
| ○ 셔틀환승 스케줄 작성 | PCO |
| ○ 식음료 서비스 마련 | PCO (한국통계청 및 OECD와 협의) |
| ○ 회의장 안내직원 채용/교육 | PCO |
| ○ 배지, 표지 프린트, 단상 설계 | PCO |
| ○ 참석자 및 배우자를 위한 여행 설계 | PCO |
| ○ 배포용 회의가방 채우기 | PCO |
| ○ 운송 및 회의진행 감독 | PCO |

2. 초청장

1차 초청장 초안(번역)

우리는 2009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 그리기(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의 제3차 OECD세계포럼에 귀하를 초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3차 포럼은 「사회발전의 측정과 촉진」에 관해 열린 제2차 세계포럼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되며 특히 '이스탄불선언(Istanbul Declaration)'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선언은 OECD가 추진 중인 '사회발전의 측정(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의 글로벌프로젝트(Global Project)라는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프로젝트는 전 세계 국제기구, 예를 들어 UNDP, 세계은행, 유럽의회 뿐 만 아니라 국제 NGO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와 한국 통계청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 3차 포럼은 (1)사회발전의 의미, (2)발전 측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3) 새 패러다임에 의한 정책의 사회발전을 촉진방안 등 세 개의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동 포럼은 각 국 정치인, 오피니언리더, 노벨상 수상자, 통계 전문가, 학자, 언론인, NGO대표 등 1500여명의 고위급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지도자와 선도적 지식인들이 한데 모이는 이 기회를 통하여 동시대 발전의 의미를 되짚고, 시민들의 증거기반 논의 참여가 더 나은 미래 위한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데 갖는 잠재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각 국별 논의의 장 구축을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 초청장에는 3차포럼의 컨셉과 의제 초안이 첨부됩니다.

귀하께서는 _____한 역할로서 _____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_____ 주제에 관련해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하시는 발표를 통해 토론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3차 포럼의 결실이 더욱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OECD통계국장 Enrico Giovannini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뵙게 되길 희망합니다.

양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김대기 한국 통계청장

통계청-OECD 제1차 실무협의 회의록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 / '08.11.11)

1. 회의 1일차 오전 (11.4. 화. 09:30)

□ 참가자

- 우리측 : 김설희 국장, 강유경 과장, 김인혜 주무관
- OECD 통계국 : 존홀 프로젝트 매니저, 수잔나 G.K 행사 기획 및 진행 담당자, 이윤정 컨설턴트 등

□ 회의내용

- 최근까지 업데이트 된 내용
 - (존홀)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종의 위협요소이지만 오히려 "Beyond GDP"라는 세계포럼 기치의 중요성이 주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존홀) 초청관련 호주 고위정부인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케빈 러드 (Kevin Rudd) 호주 총리 (second highest politician) 혹은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ry) 등의 초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존홀) 또한 엔리코 지오반니니 통계국장이 최근 세계경제포럼(통칭 다보스 포럼)의 사회발전 벤치마킹 위원회(Global Council on Benchmarking the Progress of Societies)의 위원장이 되어 동포럼의 위원회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스티글리츠 위원회 등의 세계포럼 참여가 확실시 되고 있다. 동시에 학계 및 옥스팜(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1942년 영국에서 결성된 국제적인 빈

민구호단체)과 같은 NGO, 각국 정부의 관심이 제고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 글로벌 프로젝트 팀 소식

- (존홀) 현재까지 10명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08년 11월 첫 주 내 새로운 인력(여성)이 보충될 예정이다.

○ VIP 초청 관련

- (존홀) 현재 초청장 문구를 양겔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수정작업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초청장 발송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강유경) 현재까지 이메일로 보내준 초청 예정 인사들의 참석을 100% 보장할 수 있는가?
- (존홀) 물론 100% 보장할 수는 없으나 엔리꼬 지오반니니와 다보스포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조셉 스티글리츠, 한국에서 개최되는 포럼이므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참여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말한 바와 같이 호주의 케빈 러드 총리의 참석 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 (강유경) 초청장 관련, 한국측 인사는 한국 통계청장의 명의로 발송해도 가능한가?
- (존홀) 물론 가능하다. 단, 초청장 발송시 OECD측의 담당자 (존홀 및 수잔나 GK)에게 반드시 "참조(Copy)"를 해주기 바란다. OECD측 역시 한국측 인사가 아닌 세계포럼 초청자에게 초청장을 발송시 한국측을 "참조" 하겠다. 초청과 관련하여 서로 보유하고 있는 초청인사 목록 등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OECD 장관회의의 경우,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각국의 고위인사 초청에 큰 역할을 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초청에서는 이러한 Networking 작업이 가장 중요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김설희) 얼마나 많은 총리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존홀) 14~1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총리급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다. 아는 바와 같이 세계포럼에 각국 정부가 참여(involve)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 (강유경) OECD 장관회의의 경우 KCC(방통위)가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외국 인사 초청을 부탁했으며, 이 업무가 KCC측의 상당한 부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존홀) 자세한 사항을 잘 몰랐던 것 같다. 하지만 일단 초청에 있어 인맥구축 및 활용(Network)은 상당히 중요하다.
- (김설희) 반기문 UN 사무총장 초청과 관련해서는 OECD 사무총장이 직접 초청하는 것을 제안한다.
- (존홀) OECD측은 반총장 초청과 관련하여 지난 2월 UN통계위원회 이후 직접 컨택한 적은 없다. 반 총장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포럼 6개월 전에 다시 접촉을 할 예정이다. 반 총장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초청자들이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행사 직전까지도 Confirm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예를 들어 UNDP의 커넬 더비스 역시 현재는 참석에 동의한 상태이나, 스스로 포럼 8개월, 10개월 전에도 계속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 행사 참석에 대한 Confirm을 받아달라고 했다. 우리측 역시 반기문 총장의 참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Contact을 모두 활용하여 어떻게든 확답을 받고자 하고 있다. 우리측 역시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측의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계포럼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듣게 된다면 반 총장 역시 포럼에 관심이 생겨 포럼에 참석하지 않겠나? OECD 측 역시 유엔대표부와 직접 연락도 취하고 초청장을 보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 총장과 Contact하는 노력을 취할 것이다.
- (존홀) 초청자 목록 관련하여 한국측의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는 각각의 초청 메일 모두를 "참조(copy)"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

다. 초청장은 다음주(11월 2주) 내에 내용이 확정되면 발송할 예정이다. 초청장은 초청장과 세계포럼 관련 Back paper로 구성이 되는데, 앞면에는 OECD 및 통계청의 로고 등이 삽입될 예정이고 Back Paper 등에 세계포럼 로고를 삽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 세계포럼 관련 주요 행사 - 교토회의

- (수잔나 GK) 내년 3월 23일~24일 양일간 일본 교토에서 아시아 지역회의가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회의의 의제 초안 작성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세계포럼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의제는 아태지역의 사회발전 촉진을 다양한 기제 및 시각(different technology)에서 전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와코 타케유치(Sawako Takeuch) 교토 대학 교수와 존홀이 2주 안에 회의를 가져 보다 구체적인 회의 진행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존홀) 아는 바와 같이 이스탄불 회의 전에도 한국에서 지역회의가 있었다. 교토회의 역시 이와 같은 개념이다. 현재 UNESCAP, 아시아개발은행,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등의 수장(Head) 등이 교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며, 이들이 부산포럼에 참가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측에서도 고위급 정치가 및 준 VIP급 인사를 연사로 추천해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의제(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한국측에 이를 전달하여 주겠다. 한국이 아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3차포럼 주최국이니 만큼 최소 3명 정도가 연사로 참석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 한국측 주요 추천연사 목록 및 발표주제 등을 알려주길 바란다. 교토회의는 약 2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소규모 회의지만 대신 고위급 인사들 (High level)이 참석하는 회의가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통계청에서의 인사 참여도 기대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교토회의의 각 세션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세션 1,2 에서는 아태지역에서의 사회발전의 중요성 및 미래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외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통하여 사회발전을 논의하게 된다. 세션 5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논의 주제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세션 6에서는 “미래”에 대해 더욱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션을 마련하였다. 세션 7은 에너지 및 식량안보 등 아시아의 개도국 및 빈민국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션 8에서는 사회발전추진과 관련한 새로운 기제 및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세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측 인사는 어떠한 세션에도 참석이 가능하다.

- (강유경) 교토회의 때 실무협의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리 시간 및 회의 장소를 섭외해주길 바란다.
- (존홀) 지역회의 시 회의 일정 등이 매우 바쁘다. 또한 지역회의 전에는 훈련 프로그램 (Training course)가 있다. 괜찮다면 지역회의 후에 우리(존홀 및 수잔나 GK)가 직접 부산 혹은 대전에 방문하여 실무협의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김인혜) 아는 바와 같이 호주 역시 아태지역의 중요국가 중 하나이다. 호주 측의 참석 역시 독려를 부탁한다.
- (존홀) 지역회의의 목적은 아는 바와 같이 보다 많은 국가 및 연사가 본포럼에 참석토록 독려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본포럼에서 논의될 의제를 보다 명확히 하는 (identify) 목적 역시 있다. 그러므로 본포럼에서는 이러한 각 지역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역회의의 내용은 대부분 본포럼의 보충자료(Back Paper) 등으로 활용될 것이며 반드시 본포럼의 의제와 연결(do link) 되도록 할 것이다.
- (김설희) 그렇다면 교토회의와 부산포럼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 (존홀) 교토회의는 부산포럼의 주춧돌(Stepping Stone)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토회의에 참석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산포럼에 참가하여 본포럼의 회의 1일자 지역별 워크숍 (Regional Workshop) 등에 참석할 것이다.

- (수잔나) 주요의제(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측에 보내도록 하겠다. 연사는 총 20명이고 그 중 3명 정도가 한국측 인사로 구성되었으면 한다. 일단 UNESCAP의 수장은 참석에 동의한 상태이다.

○ 세계포럼 관련 주요 행사 - 통계시각화 · 디자인 회의

- (수잔나 GK) 내년 6월 파리에서 Conference 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sign on visualisation of Statistics 가 열린다. OECD 측에서 매우 기대하고 있는 회의이다.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음. 통계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에는 Story가 있음. 누군가에게 한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 (many different ways to express)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예술가는 그림 등을 통해서 나타낸다. 한국측이 디자인강국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측의 많은 참가 독려를 부탁한다. 동회의에 관한 홍보 역시 한국측에서 해주면 고맙겠다.

- (존홀) 동회의는 OECD와 IIID(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formation Design: 국제정보디자인협회)가 통계, 기술, 디자인 등을 함께 이야기 하는 매우 생동감 있는 (lively and colorful)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는 "Present information to everybody"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12월 중에 초청장 보낼 예정인데, 그 전에 한국측에 자료를 송부하겠다.
(참고 : <http://www.iiid.net/>)

○ 세계포럼 관련 주요 행사 - 보스턴 회의

- (존홀) 내년 7월 보스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회의는 "Boston Foundation"과 함께 "Indicators of Boston's Progress"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계 중심의 소규모 회의(small conference for Academy)가 될 예정이며 본포럼의 "Physics of Changes"와 연결될 예정이다. 이에 보스턴 회의에서는 정책 전문가, 사회학자, 심리학자, 통계학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How do people react the change" 세션을 위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 파악을 위하여 심리학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역시 본포럼과 연결되는 주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Background 정보 및 지식이 구축되리라 기대한다.

- (존홀) 그 외에 남아메리카에서는 미주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소규모의 고위급 참석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아랍 및 아프리카에서의 회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측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Summer School등 기타 업데이트 되는 회의는 수잔나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할 것이다.

- (강유경) 지오반니니 국장은 교토 방문 전 한국에 올 일이 있는가?

- (존홀) 내일(11/5) 엔니꼬에게 물어 볼 예정인데 내년 1월 초 한국을 방문토록 이야기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협의를 1차는 금번 OECD 통계국에서의 회의, 2차는 엔니꼬가 방문하는 내년 1월, 3차는 내년 교토회의 후, 4차는 내년 10월 경 최종적인 점검 (final detail)을 위해 개최하면 좋겠다. 내년 10월 회의에는 IT 관련 OECD 인력(Lynda Hawe)등 역시 참석하여 회의장의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OECD 장관회의는 돌발상황 등에 대한 대처 등이 매우 훌륭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는데 한국포럼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확신한다.

○ 문화행사(Social Event) 관련 한국측이 준비한 동영상 방영

- (존홀)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다. 첫번째 날 '대북의 향연' 등으로 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둘째날 스폰서가 제공하는 저녁에는 스폰서측 연사와 부산의 고위급 정치가의 발언 등으로 구성되면 좋을 듯하다. VIP 만찬은 140명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다. 셋째날 Gala Dinner에서는 B-boy와 가야금 합주 및 전통의상 패션쇼 등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이윤정) Gala Dinner와 관련하여 한국전통 식문화 전파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한국인 기업가가 있다. 광주요그룹의 "조태원" 회장인

데 자비 등을 들여 한국 식문화의 고급화 및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분과 Contact 하여 스폰서를 구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 식사 제공 관련

- (강유경) OECD는 1차례의 오찬 및 VIP를 위한 별도 오찬, 1차례의 만찬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는데, 한국측은 원안대로 2차례의 오찬, 한 차례의 만찬, 1차례의 각테일파티가 가능하다. 현재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OECD의 추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스폰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VIP를 위한 만찬 정도는 제공 가능할 수 있다.
- (존홀) 오찬을 3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OECD가 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면, 통계청이 제공하기로 한 만찬을 OECD가 스폰서로 하여금 협찬하게 할 테니, 대신 통계청이 오찬 1회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강유경) 그것은 조정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청장님 입장에서는 오찬 보다는 만찬 때 환영 스피치를 하시고자 할 수도 있어 만찬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 (존홀)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만찬이라 하더라도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되지 않은가? 오찬을 3회 제공하는 것이 참석자들에게는 더욱 더 좋을 듯 하다. 그리고 VIP 별도 점심의 경우에는 그들을 위한 공간만을 통계청이 제공하고, 비용은 VIP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어떨까 한다.
- (존홀) 스폰서는 OECD측과 한국측이 각자 모색하는 것이므로 각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자.

○ 인력파견(outpost) 관련

- (김설희) 인력파견과 관련하여 한국측에서는 아직 내부 협의 중이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일단 추후 통보하겠지만, 인력파견이 언제쯤 시급히 필요할 것 같은가?
- (존홀) 포럼이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 4월쯤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포럼 전 3~4개월은 너무 늦는 것 같다. 그 전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1월에 사무실이 프랑스 본부 (현 프랑스 본부 개축 공사로 OECD 통계국은 La Defense에서 임시로 근무중)로 이사하기 전에 파견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언제쯤 파견이 가능한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달라.
- (강유경) 현재 통계청 내부에는 OECD 인력파견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다. 돌아가서 검토한 후 우리측 입장을 전달토록 하겠다.

○ 실무자간 연락 관련 (The way we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 (강유경) OECD측과 한국측간 다양한 정보 공유 및 긴밀한 접촉이 요구되는 바, 관계자만이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Closed Web을 구축하여 서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어떤가?
- (이윤정) OECD 내부의 규정상 OECD 관련 data가 외부에 있는 서버에 업로드 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 하지만 기타 일반 웹사이트에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보자.
- (존홀) 좋은 의견이다. 일단 당분간 Agenda 등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업데이트 되는 즉시 한국측과 공유하고, 포럼과 관련된 이메일 교환시 한국측 역시 참조(copy)하라고 모든 직원들에게 강조하겠다. 대신 Draft 아젠다 내에는 초청예정인사의 명단이 있는데 알다시피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일반대중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을 주지해 달라.

- (김설희) 한국측 역시 정보 보안에 적극협조 하겠다. 다만, 아젠다 (안)을 보낼 때 최신 업데이트 된 '날짜'를 명시하여 주길 바란다. 날짜를 통해 업데이트 된 자료인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화상회의 등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은 어떤가?
- (존홀) 좋은 의견이다. 2주에 1번 짧게라도 직접 함께 회의를 가지도록 하자. 시간은 매우 목요일 파리시간 오전 9:30, 한국시간 오후 5:30으로 하고 11월 20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 (강유경) 동의한다. 한국측 Contact Point는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다.

<12:18 오전 회의 종료>

2. 회의 1일차 오후 (11.4. 화. 14:40)

□ 참가자

- 우리측 : 김설희 국장, 강유경 과장, 김인혜 주무관
- OECD 통계국 : 존홀 프로젝트 매니저, 수잔나 G.K 행사 기획 및 진행 담당자, 이윤정 컨설턴트 등

□ 회의내용

- 회의장 설비 관련 (존홀 설명)
 - (부문회의장) 7개 부문회의장은 6개여도 무방할 것 같다. 부문회의 중 1개는 전체회의장을 활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단, 각 부문회의 중 인기가 많은 회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25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부문회의실 준비를 부탁한다.
 - (OECD 스탠드) 일반 전시 부스를 3개 붙인 사이즈가 필요하다. 전시부스 사이즈는 한국측에서 결정하고 통보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 (Welcome/registration 데스크) 1500여명이 첫날 아침에 모두 등록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보안문제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듯 하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회의 전날 부산에 도착하기 때문에 등록시의 번잡한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안사항이며, 한국측이 바람직한 판단하에 처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OECD 사무국) 14~15명의 OECD 직원이 상주할 것임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 (연사 준비실) 최소 3개 정도로 PC가 구비된 장소를 준비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 (Coffee Point) 한국측의 판단에 맡긴다. 단, 쉬는 시간이 30분임을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동선으로 처리 바란다.

- (5~8개의 기타 여분의 장소) 8~10명이 만날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 및 30~4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장소 모두 준비 부탁한다.

- 시청각설비 (존홀 설명)

- (연단 설비) 연단에는 반드시 PC가 있어야 하며, 기타 대기 연사등이 발표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plasma 스크린을 준비 바란다.

- (웹캐스팅) 웹캐스팅은 전체회의 및 1개의 부문회의에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 (강유경) 그렇다면 전체회의실 1개에 웹캐스팅 설비가 있으면 전체회의 방송 및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되는 1개 부문회의의 방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 기타 장비

- (스택간 연락장비) OECD 스택 등이 서로 연락을 취할 때 무전기는 잡음이 많아 시끄럽기 때문에 핸드폰 등을 활용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 (추가 스크린) 기타 회의장 곳곳에 plasma 스크린을 준비하여 회의장 소개 및 각종 이벤트에 대한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길 부탁한다.

- 통역

- (존홀) 터키 회의시 터키어 통역은 터키정부가 고용, 기타 통역자는 OECD와 터키가 함께 구했다. OECD가 통역자를 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터키는 기타 항공료 및 체류비를 제공하였다.

- (강유경) 한국측은 영한, 영중 통역자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만

약에 영어로 발표를 할 수 없는 통역자가 있다면 각 연사가 직접 통역자를 구해 와야 할 것이다.

- (존홀) 이와 관련하여 내일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

○ OECD 스탠드

- (존홀) OECD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OECD 내 Press & communication 부서에서 OECD가 발간하는 각종 책자 등을 소개하고 전시하게 될 것이다.

- (강유경) "Additional~" 관련하여 우리측이 OECD가 요구하는 항목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삭제 바란다. 대신, 추후 구체적인 항목 목록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 (존홀) 좋은 아이디어이다. 추후 구체적인 항목을 알려주겠다.

○ 사인 및 홍보물 관련

- (존홀) 배너 등은 매우 훌륭하게(nice) 제작되어야 할 것이며 Big Sponsor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 보안

- (존홀) 3개의 수화물 검색대를 제안하였는데, 기존 회의를 보니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면 각국에서 알아서 수화물 검색대를 설치하였다. 이번 역시 한국측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리라 믿는다.

- (존홀) 또한 약 7개의 다른 색상으로 제작된 ID카드를 제작 부탁한다.

- (김인혜) 이와 관련하여 로고 제작시 이미 제작을 완료한 상태이다. 추후 자료를 전송하겠다.

○ Mission Expenses 관련

- (존홀) OECD 측에서는 Security 2명, IT 기술자 2명, OECD 홍보국 4명, 글로벌프로젝트팀 6~7명 등 약 14~15명이 참가 예정이다.
- (강유경) 세계포럼은 OECD와 한국 공동주관인데 OECD 측 참가자의 한국 체류비를 한국이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OECD 스태프를 위한 mission expenses를 호스트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OECD 규정이 있는가?
- (존홀) OECD 측도 다시 한번 유관 규정 등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겠다. 이 역시 내일 재협의 하도록 하자.

○ 기타 요구 사항

- (존홀) 이스탄불 포럼 당시 OECD 측이 비자 발급이 필요한 참가자 목록을 보내면 이스탄불 측에서 협조 해주었다.
- (강유경)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
- (존홀) 이스탄불 회의에서는 OECD 터키 이외의 국가 참석자를, 터키는 터키 내의 참석자 경비를 지원하였다. 참석 요청 및 경비 지원 등을 각자 하지만 역시 양측이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우선 세계은행 등에서 개도국 참여자 등의 참가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였으나 금융위기 때문에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단, 한국측 역시 이와 관련하여 스폰서를 구한다거나 하는 등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주길 바란다.
- (존홀) 전체 1500명의 참가자 중 약 300명은 한국측 참가자가 참가하여 주길 바란다.

○ 아젠다 관련 (존홀 설명)

- (1일차 부문회의 관련) 각 세션은 각 지역의 VIP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1일차 전체회의에서 아태 지역에 관한

발표를 노엘린 헤이저 UNESCAP 총장이 할 예정이므로, 오전 부문 회의의 아태지역회의는 한국측의 고위급 인사가 진행하길 바란다. 각 부문회의는 3명의 연사와 1명의 토론자로 구성될 것이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것이다. 단, 연사 및 토론자는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한국측은 200명의 연사 중 약 10% 연사, 즉 20명을 기대한다.

- (강유경) 아젠다 관련 한국측 제안 사항이 있다.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다. Beyond GDP에 부합하는 주제로 생각한다.
- (존홀) 좋은 아이디어이다. 현재 아젠다 위해 각국 통계청, UNDP등 국제기구, OECD 내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체 논의 가능한 아젠다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취합중에 있다.
- (강유경) 프로그램 구성 관련 전체회의 구성은 대부분 끝났으나 부문회의 세션 역시 올해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 세션 구성이 초청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
- (존홀) 주지하고 있겠다. 현재 둘째날 오전, 오후 부문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구성토록 하겠다. 일단 연사 초청 관련하여 한국측에서 추천 연사 목록 및 주제에 관한 목록을 보내주면 OECD 측에서 검토(screen)후 최종 선택된 연사를 알려 주겠다. 일단 한국측은 의장, 연사, 토론자를 모두 포함하여 15명 정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140여개국의 참가자가 참석하는 포럼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균형(balance)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사 및 프로그램 등은 6개월 전에는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올해 크리스마스 전 1차 프로그램(안)을 완성후 consult 받은 후 내년 3월 확정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6:58 오후 회의 종료>

3. 회의 2일차 오전 (11.5. 수. 10:05)

□ 참가자

- 우리측 : 김설희 국장, 강유경 과장, 김인혜 주무관
- OECD 통계국 : 엔리꼬 지오반니니 통계국장, 존홀 프로젝트 매니저, 수잔나 G.K 행사 기획 및 진행 담당자, 이윤정 컨설턴트 등

□ 회의내용

- 전일 회의내용 정리
 - (존홀) VIP 만찬과 관련하여 누리마루 등의 장소를 제공하면 식대는 스폰서를 통해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도 스폰서를 구하게 된다면 만찬이 아닌 개도국 인사 및 학계 등의 초청 비용 혹은 Mission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는가?
 - (김설희) 스폰서를 구하게 된다면 그들은 특정 행사 (a certain event)에 투자를 할 것이다.
 - (존홀) 만약 한국측이 스폰서를 구하게 되면 기존 한국측이 만찬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을 NGO 등을 초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 (김설희) 현재 확답을 할 수는 없으나, PCO와 협의하게 되면 요청 혹은 협상을 하여 다른 예산항목으로 활용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홍보 관련
 - (존홀) 홍보 동영상과 관련하여 이스탄불 포럼에서는 포럼 동안의 홍보동영상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2차 포럼 때는 OECD 직원이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는데 3차 포럼 역시 "Beyond GDP"를 주제로

하여 약 5분 정도의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포럼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포럼 전 유관회의에서도 방영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부산 관련 이미지 혹은 Video clip 등을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 특히, Plenary session 마다 short film을 제작하여 1분~2분 정도 각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짧게 정리하여 방영하는 것을 제고하고 있다.

○ 엔리꼬 지오반니니 OECD 통계국장과의 면담 (10:45)

- (지오반니니) 어제 MOU 각 항목 및 실무단계의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었다. 특히 전체 만찬을 위한 스폰서 등에 관하여 더욱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다.
- (김설희) PCO 선정 후 계약 조항을 조금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으나 아직 확답을 할 수는 없다.
- (지오반니니) 2차 포럼 때와 같이 국책은행, 예를 들어 한국은행 등에서 스폰서로서 식사를 대접해도 좋을 것이다. OECD 측 역시 아직 스폰서를 찾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폰서를 찾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는다. 특히, 권태신 前 주 OECD 대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도움을 많이 제공하였다. 추후 권태신 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할 예정인데, 이 메일을 한국측에도 참조(Copy)하여 내용을 공유토록 하겠다. 권태신 전 대사가 매우 협조적이었고 동포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 (지오반니니) 또한 스폰서를 찾는 작업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스폰서가 직접 OECD에 자금을 제공한 후, OECD가 이 기금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여 왔다.
- (김설희) 업무범위에 관한 각각의 역할 및 범위에 대한 협의시 스폰서 물색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맡기로 결정한 바 있다. 스폰서는 각자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 (지오반니니) 현재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개도국 인사들의 회의 참석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 (김설희) 현재 PCO 선정 중이며, 계약 체결시 이러한 부분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활용하는 등)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예산관련해서는 준비기획단의 총괄기획과가 담당하고 있어서 총괄기획과와의 협의 역시 필요하므로 현재 확답을 줄 수는 없다.
 - (지오반니니)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 약 8개의 기관(agency)이 개도국을 원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김설희) KOICA와 같은 기관이 있는데 고려토록 해보겠다.
 - (지오반니니) 우리는 큰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100~1000 달러 정도이다.
 - (김설희) 스폰서를 찾고 활용하는 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어 고맙다. 우리측 역시 다양한 기관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 (지오반니니) 내년 1월 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단 MOU 각 항목에 대하여 legal service를 받은 후 MOU 체결을 하도록 하자. MOU의 제목은 "partnership agreement"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 (강유경) 한국측 외교부 자문 결과, 대한민국 정부와 OECD간 agreement가 맺어져 있어 MOU를 체결해야 한다.
 - (존홀) MOU의 명칭 등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협의 항목(specific and respective agreement)을 나열한 내용의 문서(document)가 존재하는 것이다.
- 행사장 동선 점검 및 전시장 관련
- (지오반니니) 각 회의장, 전시장, 점심장소 등의 구체적인 동선이 필

요하다. 전시기관은 최소 30개에서 최대 50~60개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시장 확보가 필요하다.

- (존홀) 100 units의 개념은 전시기관 수가 아니라 전시 '부스'를 의미한다. 각 unit의 크기는 한국측이 정한 후 통보 부탁한다. 그에 맞추어서 전시기관을 섭외토록 하겠다. 전시기관에서도 역시 wifi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호텔 위치

- (존홀) 호텔은 회의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30~40% 정도 할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VIP 보안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 (김설희) PCO와 협의 후 통보토록 하겠다.

○ CSTAT (OECD통계위원회 회의)

- (지오반니니) 포럼 전날 (10.26.월) 개최되는 CSTAT을 위한 장소 등을 확보 부탁한다. 회의에는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회의는 9시~12시, 2시~5시 까지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장에는 통역 부스 등 통역 관련 시설 (단, 통역인력은 OECD가 전담하여 구하겠다), 대형 스크린, 랩탑 컴퓨터, 마이크, 연단, 두차례 커피 브레이크 등이 필요하다. 식대는 각 참가자가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Martin과 상의토록 하라. 기타 12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UNESCAP 회의에 가서 세계포럼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전시회 관련

- (린다 허) 전시회 관련 '주제'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웹사이트에서 전시회 신청 및 상담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존홀) 전시 비용과 관련하여 OECD 내 부국에서 참가하는 전시기관에는 참가비를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이 내도록 하여 여분의 금액을 개도국에서 참가하는 기관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토록 할 것이다. 일

단 전시기관의 약 10~20% 정도는 무료 (free of charge)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김인혜) 전시회 참가자는 포럼에 초청 받은 사람, 전시회 참가를 사전에 등록한 참가자와 함께 현장등록자도 포함하여 전시회를 활성화 하였으면 한다.
- (린다 허) 좋은 의견이다. 단, 참가자의 지적수준(quality)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전시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우선 참가비를 내면 모두 수락할 예정이나 추후 전시기관 선정 관련 위원회(committee) 등을 구성하여 PCO등과 상의 하겠다. 또한 무료혜택을 받는 전시부스(stands)의 위치 역시 결정할 예정이다.
- (김설희) 전시회 규모 및 각 부스 규모 등은 내년 초 PCO가 선정되면 통보토록 하겠다.
- (지오반니니) 내년 1월 13~14일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12일에 한국에 도착하도록 하겠다.

< 12:00 오전 회의 종료 >

4. 회의 2일차 오후 (11.5. 수. 14:30)

□ 참가자

- 우리측 : 강유경 과장, 김인혜 주무관
- OECD 통계국 : 린다 허 웹마스터, 수잔나 G.K 행사 기획 및 진행 담당자, 이윤정 컨설턴트 등

□ 회의내용

- IT장비 설치 관련
 - (OECD ICT 부서 다니엘 및 린다 허) 우선 전체회의장에 wifi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다니엘) MOU 세부항목을 점검하였다. OECD 스태프를 위한 local network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컴퓨터가 모두 프린터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라운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PPT, WORD 등 2007 버전이어야 한다.
 - (강유경) 잘 알겠다. 추후 각종 네트워크 연결 및 IT장비 설치와 고나련하여 BEXCO가 제공가능한 연결방법을 린다 허에게 통보토록 하겠다.
- 웹캐스팅 관련
 - (린다 허) 웹캐스팅은 생중계 시(live access) 동시접속 가능 인원이 몇 명인가? 확인 후 통보 부탁한다. 또한 웹캐스팅 내용은 녹화물로 제작되어 이후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 (김인혜) 홈페이지는 2010년 4월에 단을 예정이지만, 녹화물 등은 oecd.org/progress 등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가능할 것이다.

- (린다 허) 웹캐스팅은 영어로만 방영될 예정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영어 외의 기타 언어 등은 자막 등의 방법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기타 등록부스 및 사무국의 컴퓨터간 네트워크가 진행된다면 등록자의 참석 여부를 사무국에서 직접 승인(approval)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15:30 회의 종료>

김중수 주 OECD 대사 면담 내용

□ 일시 및 장소

- '08.11.5.수요일 오후 5시~6시, 주 OECD 대표부 대사 집무실

□ 참가자

- 우리측 : 김설희 국장, 강유경 과장, 김인혜 주무관
- 주 OECD 대표부 : 김중수 주 OECD 대사, 서원석 부장

□ 면담 내용

- (김설희) OECD 세계포럼에 대한 브리핑 후, 회의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OECD측에서는 특히 저개발국 및 NGO 단체 참여 독려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측 발표인사를 전체 200명 연사 중 약 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국측 인사 역시 명망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연사를 선정하여 포럼의 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 (김중수 대사) 브리핑을 OECD 세계포럼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사 관련하여 본인 역시 주 OECD 대사로서 상당한 관심이 있고 좌장으로서 참가할 의사가 있다. 포럼 등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과는 달리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호기이므로 제3차 OECD 세계포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 (김설희) 적극적인 관심 표명에 감사한다.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진행

중인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인사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엔리꼬 지오반니니 OECD 통계국장이 권태신 전 대사와 친분이 있어 직접 협조를 요청하는 메일 발송시 우리측에도 참조를 한다고 하여 권태신 전 대사와 접촉할 예정이다. 권태신 전대사는 현재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 (김중수 대사) 상당히 좋은 내용의 포럼이니만큼 대통령님의 참석 등 VIP 참가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17:50 면담 종료>